

# Issue Comment

- ✓ 현대제철, 비조선용 후판 가격 3만원 추가 인상 확정
- ✓ 최근 삼성중공업의 적자공시는 5만원 인상폭 유지 가정임
- ✓ 조선사 적자 폭 확대 가능성이 열려있음

## 내년 상반기 조선사 후판 매입 가격 추가 인상 가능성이 열려있다

최근 조선사와 철강사가 2017년 하반기 후판가 협상을 지지부진하게 끌어오다 결국 5만원 인상에 합의했다. 그러던 12월 14일 현대제철은 비조선용 후판 가격의 3만원 추가 인상을 확정 지었다. 물론 비조선용 후판이지만 여타 철강재 대비 아직 5만원의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후판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추정에 당위성을 부여하는 소식이다.

후판 가격 인상은 조선사에 치명적이다. 선종마다 소폭의 차이가 있지만 VLCC 기준 전체 원가에서 후판 투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 ~ 30% 내외로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삼성중공업은 후판 가격 인상에 따른 선제적인 원가 반영으로 2017년 -4,900억 원, 2018년 -2,400억 원 영업손실 전망 공시를 한 바 있다. 적자 공시와 함께 삼성중공업 측은 해당 전망이 최근의 5만원 인상이 고정된다는 가정 하에 추정한 것이라 밝혔다. 즉, 조선용 후판 가격도 3만원 가량 인상된다면 이는 곧장 적자 폭의 확대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삼성중공업만이 적자 공시를 냈지만, 후판 가격 인상 영향을 유사하게 받을 수 밖에 없는 현대중공업의 수익성도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

### 비조선용 후판 가격이 선제적으로 인상됨

### 3만원 추가인상은 조선사 적자폭을 확대시킬 전망

#### 현대제철, 후판價 인상 확정..얼마나 올리나?

- 비조선용 후판 톤당 3만원 인상 "추가 인상도 검토"  
- 고원가 부담 및 수익 회복 '절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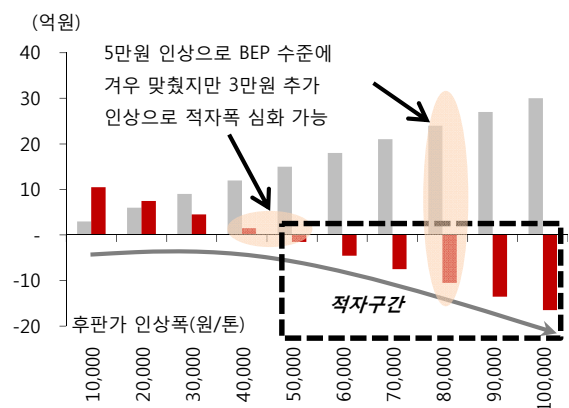
2017-12-14 07:52 | 유봉동 기자 (yfb@steelsteel.co.kr)

현대제철이 비조선용 후판가격 인상을 확정했다. 원가부담 확대와 중국발(發) 가격 급등 등이 요인으로 작용했다. 현대제철은 향후 시장여건을 고려해 추가적인 가격 인상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대제철은 오는 19일 철수 및 유통창 주문투입분부터 후판 공급가격을 톤당 3만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자사 코일센터들에게 통보를 시작한 상태다. 이번 가격 인상으로 현대제철의 후판 공급가격은 톤당 70만원 고지에 올라서게 됐다.

현대제철은 후판가격 인상을 통해 적자 폭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제철은 당분간 후판 판매 전략을 수익성 확보로 정하고 물량보다는 가격을 끌어올리는데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 조선사 추가 투입 비용 ■ VLCC 적당 영업이익



자료 : Steel Daily

자료 : Steel Daily, SK 증권

- 작성자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투자판단 3단계 (6개월 기준) 15%이상 → 매수 / -15%~15% → 중립 / -15%미만 → 매도